

맨시티 “한 걸음만 더”... 트레블 달성 눈앞

라이벌 맨유 2-1로 꺾고 11일 UCL 결승행
EPL 2관왕 획득하자 UEFA서 트레블 주목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정상에 섰다. 맨시티는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꺾고 ‘맨체스터 더비’에서 승리하며 트레블(리그 우승, FA컵 우승,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한 걸음만 남겨졌다. 맨시티는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축구 성지’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FA컵 결승전에서 ‘캡틴’ 일카이 칸도안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맨유를 2-1로 제압했다. FA컵 결승 무대에서 펼쳐진 첫 맨체스터 더비에서 승리한 맨시티는 2018~19시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7번째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앞서 EPL에서 우승하며 시즌 2관왕 ‘더블’도 이뤄냈다. 구단 창단 140여 년 만에 첫 트레블을 눈앞에 뒀다. 맨시티는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인터콘티넨탈컵(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서도 승리하면 트레블을 달성한다. UCL 우승을 포함하는 트레블 도전에 나선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다. 잉글랜드

구단 가운데 UCL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을 달성한 팀은 1998~99시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끌던 맨유가 유일하다. 당시 맨유는 정규리그와 FA컵, UCL에서 우승했다. 시즌 막판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 보이는 맨시티 선수들은 트레블을 향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맨시티를 이끌고 있는 번번이 UCL 우승에 실패했던 펠 과르디올라 감독(스페인)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 칸도안이 이날 원맨쇼를 펼치며 맨시티의 우승에 앞장섰다. 칸도안은 경기 시작 12초 만에 벼락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케빈 더 브라우너와 상대 선수의 공중볼 경합 도중 자신에게 날아온 공을 지체 없이 강력한 드롭 킥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는 FA컵 결승 사상 최단 시간에 터진 골로 기록됐다. 맨유는 전반 33분 맨시티의 왼쪽 윙 포드 잭 그릴리가 공중볼 경합 도중 핸드볼 반칙을 범해 얻어낸 페널티킥을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칸도안은 후반 6분 더브라우너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프리킥 크로스를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맨시티 주장 일카이 칸도안이 3일(한국시간) 2022~23 잉글랜드FA컵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치켜올리며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슈퍼 루키’ 로즈 장, 프로 데뷔전 우승 신화 쓰나

5일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 공동 2위에 2타 앞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슈퍼 루키’ 로즈 장(20·미국)이 데뷔전 우승을 눈앞에 뒀다. 중국계 미국인인 로즈 장은 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총상금 275만 달러·약 35억7500만 원)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 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선두에 나섰다. 공동 2위인 동갑내기 아타야 티티쿤(태국), 아디티 아소크(인도) 등에 2타 앞서 있다.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은 아마추어 최강자로 군림하던 로즈 장이 프로 전향을 선언한 뒤 출전한 LPGA투어 대회다. 로즈 장은 프로 전향 선언 직전까지 사상 최장기간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141

주) 기록을 이어갔고 미국 대학 선수권대회 2연패와 미국 스탠퍼드대학 출신 최다 우승(12승) 기록을 보유한 장은 LPGA투어 데뷔전 우승이라는 진기록에 도전하게 됐다. 현재 스탠퍼드대 3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이다. LPGA 투어 데뷔전 우승은 1951년 이스턴오픈 베벌리 헨슨(미국), 그리고 2018년 호주여자오픈 고진영 등 단 두 번뿐이다. 로즈 장은 이날 기운이 푹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3라운드에서 정교한 샷에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버디 6개를 잡아냈다. 그린을 3번 놓쳤지만

위기를 모두 거뜰하게 넘겼다.

로즈 장은 5일 최종 4라운드에서 2003년생 동갑이자 LPGA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아타야 티티쿤과 챔피언즈에서 경기한다.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인 티티쿤은 장에 2타 뒤진 공동 2위(9언더파 207타)에

올라 통산 3승과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2라운드에서 공동선두에 나섰던 사이엔 나이트(미국)는 2타를 줄여 공동 2위에 포진했다. 나이트와 함께 공동선두로 3라운드를 시작한 이민지(호주)는 이븐파 72타를 적어내 5위(7언더파 209타)로 밀렸다. 6타를 줄인 유해란과 2언더파를 친 지은희가 공동 6위(6언더파 210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유해란은 13번 홀(파5)과 16번 홀(파4)에서 이글 2방을 뽑아냈다. 6번 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써내며 이븐파 72타에 그친 고진영은 공동 9위(5언더파 211타)로 내려앉았다.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버디는 1개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더블보기 1개와 보기 4개를 쏟아내며 무려 5타를 잃고 공동 27위(1언더파 215타)로 추락했다.



로즈 장, AP-연합뉴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김시우, 메모리얼 토너먼트 공동 선두

김시우(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 달러·약 260억 원)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랐다. 김시우는 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57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더블보기 2개와 보기 1개를 적어냈으나 버디 6개로 이를 만회하며 1언더파 7타를 쳤다. 3라운드 합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데이비드 립스키(미국)와 함께 공동 1위로 마지막 4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PGA 투어 통산 4승의 김시우는 올해 1월 소니오픈 이후 5개월 만에 5승 달성을 바라보게 됐다.



한국 선수로 PGA 투어 5승 고지를 밟은 선수는 8승의 최경주가 유일하다. 또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 역시 2007년 최경주뿐이다. 세계적인 톱 랭커 매길로이,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립스키가 김시우와 함께 공동 1위다. 매길로이는 지난해 10월 더 CJ컵 이후 8개월 만에 투어 24승째를 노린다. 단독 1위를 달리던 립스키는 17, 18번 홀 연속 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김시우와 매길로이에게 공동 1위 자리를 내줬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